

칸트의 ‘요청’으로서의 신 존재와 야스퍼스의 신 인식의 문제

김영순*

- I. 들어가는 말
- II. 전통적 신 존재 증명과 칸트의 입장
- III. ‘요청’으로서의 신 존재의 근거
- IV. 신 존재 ‘요청’의 문제와 야스퍼스의 신 인식
- V. 맺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칸트의 도덕적 행위자를 위해서 ‘요청’되어진 신의 존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야스퍼스의 유신론적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범위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감성의 형식과 범주를 통하여 마음이 포착한 감각 세계, 인지된 경험 세계 즉 현상계에만 국한된다. 이러한 칸트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형이상학자들은 신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참된 인식이라고 주장

* 숭실대학교 철학과 박사 수료

한다. 그래서 칸트는 신을 이론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에 반론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신 존재 증명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다.

칸트가 신 존재 증명의 불가능성을 주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형이상학에 대한 제한과 부정을 통한 초월자에 대한 인식 불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당위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 즉 도덕형이상학을 세우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칸트에게 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은 전적으로 이성 사용에 관한 문제였고 새로운 형이상학을 건설하고자 했던 그에게 이것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가 밝힌 대로 칸트의 형이상학은 자유, 영혼불멸, 신에 관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현상계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들 즉 자유, 영혼불멸, 신의 존재를 실천이성의 영역으로 넘기면서 인간의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을 ‘요청’하였다.

칸트는 인식세계의 신은 알 수도 없고 증명되어 질 수도 없다고 하여 신 존재를 ‘요청’의 문제로 귀결하였다. 야스퍼스는 이와 같은 칸트의 신관을 극복하기 위해 유신론적, 철학적 신앙을 전개하였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실존을 가장 잘 해명해주는 것은 죽음 고뇌, 투쟁, 책임 같은 ‘한계상황’이다. ‘한계상황’ 가운데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현존재에게는 결정적인 종말이 되고 실존에게는 초월자 앞의 본래적 자기에게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근거가 된다. 한계상황에서 부딪히는 한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한계를 만든 어떤 초월자를 암시해 준다.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이 초월자는 실제로서 인식되어지지 않고 다만 언표 될 뿐이다. 이것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는 어떤 숨어 있는 존재이다. 이 참된 존재로서의 초월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이 형이상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암호 독해’이다.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이 좌절할 때 비로소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Chiffrelesen)할 수 있다.

칸트의 철학이 기여한 바는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철학적 입장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의 도덕적 신앙을 통해서는 초월적 존재와의 접촉을 결핍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실존적 삶의 변혁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시 유신론적 실존철학을 통한 신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실존의 위기, 삶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단지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실천적 '요청'으로서의 신이 아닌 저편에서 이 세계를 향해 꿰뚫고 들어오는 계시로서의 철학적 신앙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칸트의 '요청'으로서의 신 존재와 신 인식의 한계는 아래로부터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실존적, 도덕적 해명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위를 향한 초월적 존재에 인식과 실천은 이른바 계시적 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삶의 세계가 더 성숙되기 위해서 이제 철학은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계시에 직면한 철학과 실존을 더 깊이 해명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도덕형이상학, 신의 요청, 최고선, 덕, 영혼의 불멸, 실존, 한계상황, 암호독해

I. 들어가는 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알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세계를 인식하며 파악하고자 한다.¹⁾ 그런데 오늘날 인식론적 측면에서 외부세계의 사물, 또는 대상에 대한 인식 외에, 내면적인 것, 더 나아가서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1) Aristoteles, *Metaphysica*, 980a21, 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서울: 서광사, 2000), 13쪽 재인용.

바로 이 형이상학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철학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근대 철학자 칸트는 종래의 수많은 질문을 종합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로 결집시켜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찾아나간다. 이 질문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귀결될 수 있으며(KrV, 833) 이 문제의 초점을 인식에 두고 신의 존재는 과연 인식될 수 있는가가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²⁾

칸트는 계몽철학의 완성자인 동시에 극복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하여 비판철학으로 집대성했다. 칸트의 탁월한 해석자 인 호페(O. Höffe)가 칸트의 새로운 형이상학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연적 소질로서의... 형이상학은 인식의 영역에서는 자기기만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인간 이성은 모든 경험 저편의 대상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이를테면 세계의 시초, 신의 존재 등에 대한 ‘자연적 물음들’은 이성을 모순 속에 빠뜨린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결과, 즉 현상과 물자체의 구분을 인정하고 객관적 인식을 가능한 경험에 제한시킬 때 비로소 이러한 모순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칸트가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만큼 신 존재 문제는 비판적 선험철학으로 성립시켜서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칸트는 특별히 신을 말함에 있어서 ‘요청(Postulate)’으로 결론짓고 있지만 우리는 신을 ‘요청’으로서가 아닌 실제적 존재이며 그 실제적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천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칸트의 도덕적 행위를 위해서 ‘요청’되어진 신의 존재의

2) 이하 칸트원전의 경우 *Kritik der reinen Vernunft*, ed. Ray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1959)를 KrV로 병기하여 본문에 표시함.

3) O. Höffe, 『임마누엘 칸트』, 이상현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1997), 73쪽.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야스퍼스의 유신론적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칸트에 대한 야스퍼스의 비판처럼 칸트의 도덕적 신앙은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다. 더욱이 칸트의 비판철학이 초월적인 철학이지만 초월자의 철학은 아니다. 그러므로 야스퍼스의 입장을 따른다면 칸트의 도덕적 신앙은 형상 없는 신이기 때문에 실존적 결단에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살 준비를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스퍼스의 실존적 신 인식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 안에서 또는 시간 안에서 영원을 파악하는 능동적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그 한계를 넘어서 사유를 시도하여 칸트에게서 결핍된 신 인식의 가능성을 야스퍼스 철학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⁴⁾

이 글은 칸트의 비판기 철학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전 비판기에는 칸트도 중세의 특수 형이상학에 대해서 절대자인 신을 다루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적-유신론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⁵⁾ 그러나 비판기 철학으로 접어들면서 칸트의 신 인식은 도덕적 신앙으로 경도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판기 철학으로 한정지으면서 칸트의 신 존재 증명에 대한 비판과 '요청'으로서의 신 존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글은 칸트의 입장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야스퍼스의 철학을 통해서 필자의 입장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칸트에게 있어서 초월론적 신 개념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논쟁점들을 보완하면서 이성을 통한 또는 신앙을 통한 신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4) 홍중률, 『이성신앙과 철학적 신앙』(서울: 형설출판사, 2001), 48~49쪽; Leonard H. Ehrlich, *Karl Jaspers: Philosophy as Faith*(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5), 143쪽. 에를리히(Leonard H. Ehrlich)도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은 칸트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초월성에 대한 실존적 관심으로 전회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5) 하선규, 「칸트 전비판기의 합목적성의 개념」, 『철학연구』, 제44집(1999/봄), 213~238쪽.

II. 전통적 신 존재 증명과 칸트의 입장

칸트는 신을 자유, 영혼의 불멸성과 함께 형이상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이념이라 하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대응될만한 대상이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념은 단지 사유(denken)될 뿐이지 인식(erkennen)되지 않는다. 무엇인가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가능해야 하는데 신은 그렇지 않다. 칸트는 경험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신은 경험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인 절대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형이상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신 개념 뿐만이 아니라 신 존재 즉 무제약자, 무한자, 초월자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며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참된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신을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신 관념뿐만이 아니라 신 존재 자체를 이론적으로 확증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전통적인 신 존재 증명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 물자체(Ding an sich)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무제약자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이런 노력은 공허할 것이다.⁶⁾ 그래서 칸트는 무제약자를 이론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에 반론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신 존재 증명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전통적 신존재 증명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오성이 주장하는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신에 대한 논리적 입장이 불가능함을 지적한 것이다. 인간은 초자연적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이러한 입장은, 칸트에 따르면 인간을 유한자로 전제하

6) 최재희,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연구』(서울: 박영사, 1976), 18쪽.

고 자신의 체계적인 형이상학 또는 도덕형이상학을 세우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⁷⁾ 그러나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의식을 통하여 경험과 독립된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였다.

칸트의 도덕적 체계는 순수실천이성과 자유가 그 근본이념을 이루고 있다. 칸트는 그의 도덕 이론을 옳고 그름에 두고 동기에 중점을 두면서 설명을 한다. 이를 그는 선의지라 하고 선의지만이 독자적이요, 무제약적으로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세계 안에서나 세상 밖의 어느 곳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 밖에 없다.⁸⁾ 선의지는 절대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무조건 선택하며 모든 선의 최고 조건이며 그 자체로 다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칸트의 선의지는 자유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선의지는 지상 명령을 가능케 했고 지상명령은 최고선을 성립케 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명령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준칙이요, 명령이다.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을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칙에 좇아서 행위하라”⁹⁾, 이어서 또한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 하라”¹⁰⁾라는 명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동기는 선의지로서 출발되어야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목적은 수단이 아닌 동기에 기본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목적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목적 자체는 도덕법칙을 자각하는 주체가 된다. 칸트는 한 걸음 더

7) 최재희, 위의 책, 19쪽.

8) I. Kant, 『실천이성비판』, 최재희 옮김(서울: 박영사, 1997 2판), 189쪽 (번역서에는 『실천이성비판』 안에 『도덕철학서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 『실천이성비판』과 『도덕철학서론』으로 따로 표기). “이 세계 안에서 아니 더 넓게 이 세계 밖에서도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I. Kant,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논기』, 이원봉 옮김(서울: 책세상, 2002), 27쪽.

9) 위의 책, 197쪽.

10) 위의 책, 215쪽.

나아가 도덕법의 보편성과 주체성을 종합하여 이르기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항상 입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¹¹⁾

목적의 왕국은 이성적인 존재자들이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서 각자가 추구하는 주관적 목적이 보편적인 도덕법칙과 항상 일치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이상적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 우리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공동체이다. 목적의 왕국은 감성계에 초 감성계의 형식을 부여하는 세계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 소명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삶일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항상 목적 자체로 대한다면 그와 같은 ‘목적의 왕국’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세계라고 칸트는 보고 있다.¹²⁾ 목적의 왕국은 말하자면 오직 덕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그런데 덕은 칸트가 말하는 최고선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최고선에는 덕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들이 추구하는 행복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의무를 저버리고 오직 욕구 충족을 통해 오는 행복이 아니라 각자의 덕에 상응하는 행복이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선이 덕과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칸트의 도덕철학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목표이다.¹³⁾

그러면 순수한 의지 즉 최고선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덕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데는 최상의 조건이 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덕은 최고선이다. 그러나 감성계 안의 이성적 존재자는 최고선에 도달할 수가 없다. 만일 어떤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도덕법에 완전히 일치했다고 하면 그는 이미 신성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성은 이 목적지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는 이 계속적인 이성 존재자의 전진을 ‘영혼의 불멸’이라고 말하고 있

11) I. Kant, 『도덕철학서론』, 최재희 옮김, 227쪽.

12) 강영안,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서울: 소나무, 2000, 118쪽.

13) 강영안, 위의 책, 119쪽.

다. 최고선은 완전이라는 의미의 최상의 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덕과 행복은 현실에서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덕은 도덕적인 자유의지에 관계되고, 행복은 감성계에 관계된다는 사실에 기인한 까닭이다. 이 일치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최고선을 실현할 수 있는 이는 전능한 신 밖에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¹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인간이 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칸트는 고백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최고선을 위하여, 즉 도덕의 최고선을 위하여 신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고선은 신이 존재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 존재의 전제”를 의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를 가정함은 도덕적으로 필연이다.¹⁵⁾

칸트는 도덕철학을 끝맺으면서 인간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형이상학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칠 때의 상황을 기술한, 1781년의『순수이성비판』머리말 첫 구절을 연상케 한다. “인간의 이성은 어떤 종류의 인식에 대해서는 특수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이성자체의 본성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성이 거부할 수가 없으며 또한 그것이 인간이성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해답을 얻을 수도 없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야 할 운명인 것이다”(KrV I). 이성은 모든 가능한 경험적 사용을 초월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과도 일치하는 듯이 보이는 원칙들에게로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¹⁶⁾

그러나 이 때문에 이성은 혼미와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미와 모순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성은 그 어디엔가 근저에 오류가 반드시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성은 모든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여 있으며 이성이 사용하는 원칙은 경험에

14) 최재희, 『실천이성비판』(서울: 박영사, 1975), 134쪽.

15) 최재희, 위의 책, 137쪽.

16) 문성학, 『칸트 철학의 인간학적 비밀』(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316쪽.

의한 비판을 이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끝없는 논쟁의 싸움터가 곧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에 있어서 도저히 근절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요구를 생각하며 그의 이성비판을 형이상학에 대한 필수 불가결의 예비학 이라고 보는 동시에 우리의 이론적 인식을 현상계에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학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앞에서 서술한 칸트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형이상학적 고뇌에 대해 순수 과학적 인식의 입장은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약간의 실마리를 제시하여 주었을 뿐이다. 이에 칸트는 순수 실천이성의 도덕법칙이 간신히 가상세계의 문을 열게 됨으로써 앞의 장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칸트의 도덕적 논증으로 말미암아 신의 존재증명이 다 해소 된 것은 아니다. 순수 사변이성보다는 실천 이성이 신 존재 증명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신앙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나는 지식을 지양해야 한다”(KrV., X X X)고 하면서 신 존재 증명의 구체적 대안을 실천이성의 ‘요청’에 넘기게 된다.¹⁸⁾

Ⅲ. ‘요청’ 으로서의 신 존재의 근거

전통적인 신 존재 증명은 스스로의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한 칸트는 최소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순수 실천이성을 들고 나왔다. 이 순수 실천이성은 인간행위와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천법 내지는 도덕법’으로서 모든 행위에 임할 이성들에게 정언명령을 제시하였다. 누구든지 이 정언

17) 박종홍, 『인식논리』(서울: 박영사, 1978), 15쪽.

18) 최재희,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연구』, 21쪽. 칸트는 자신의 비판적 형이상학에 의해서 관념론, 유물론, 운명론, 무신론, 자유 사상적 무 신앙, 광신, 미신 등이 근절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명령을 피할 수 없으며 또 거부하거나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신은 여전히 증명되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에 칸트는 도덕적(필연적) 실천법을 등장시킨다. 인간의 무제약적 욕구는 도덕의 영역에서 인간이 최고선을 추구하기를 명령한다.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최고선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상의 도덕명령이다.¹⁹⁾ 최고선은 도덕적 이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개념들은 이성의 순수개념일 뿐이므로, 그것에 대응하는 직관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론적인 방도로 그것의 객관적 실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자유, 영혼불멸, 그리고 신이다.

칸트에 의하면 최고선의 촉진은 인간의지의 선천적인 필연대상이요, 도덕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신, 영혼불멸 그리고 자유는, 실천이성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기를 명령하는 최고선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이다. 그럼으로써 이 세 가지 이념은 절대적인 실천법칙에 의해서 객관적인 실재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칸트가『실천이성비판』에서 실천적 형이상학을 건설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실천이성의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악중심주의 윤리학을 법칙중심주의 윤리학으로 변경시키면서 인간의 자유를 증명한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도덕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어떻게 최고선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바꾼 뒤에,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칸트는 신 존재와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런 식의 실천적 증명을 “순수 실천이성의 요청”이라 부른다.²⁰⁾

그리고 인간은 이성 안에 내재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자신 안에 하나의 ‘위대한 허구’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인간이 버릴 수 없는 허구가 바로 자유, 영혼의 불멸, 신이다.²¹⁾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갖게 된 이 이념적 허구는 지난밤에 꾸었던 허황된 꿈이 아니라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며 내

19) 문성학,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존재론』(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381쪽.

20) 문성학,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존재론』, 382~383쪽.

21) 김석수, 『칸트와 현대사회 철학』(서울: 울력, 2005), 26쪽.

일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위대성을 잉태하는 위대한 허구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이 허구를 품고 자신의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²²⁾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내가 두 가지 대상을 여러 차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찰 하는 일에 종사하면 할수록, 이들 두 대상은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경탄과 외경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운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내 머리 위에 존재하는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도덕법칙이다.’ 나는 이 둘을 내 앞에서 보며,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식과 직접적으로 결합한다.”²³⁾

칸트에 의하면 모든 자연현상들은 인과적 법칙 아래 있고, 인간이성은 자유법칙을 따라서 이성 고유의 법칙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의무라는 말에다 무게중심을 두고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선의지를 통하여 의무이행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의무적 존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의 자유가 요구된다. 의지의 자유가 없는 존재에게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지가 자유라는 것은 직관으로나 또는 추리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인간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유에 대한 직관능력은 거부되었고 단지 실천법칙의 존재를 확인해가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제약적인 실천법칙의 존재”를 토대로 하여 자유의 가능성을 설명하게 된 것이다.

칸트는 “실천법칙은 존재 한다”라는 전제아래 “의지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천법칙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의지의 자유를 ‘요청’하므로 실천법칙의 존재는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무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의지의 자유를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자율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유란 이성적으로 행위하는 존재자가 이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즉, 이성적 존재자의 자기 한정이다.²⁴⁾ 그러므로 자유는 인간과 이성적 존재자의 존

22) 김석수, 위의 책, 31쪽.

23) I. Kant, 손동현·김수배 옮김, 『별이 총총한 하늘아래 약동하는 자유』(서울: 이학사, 2006), 105쪽.

업성의 원천인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고 스스로 그에 복종할 수 있는 이성 존재자의 힘, 곧 자율성이다.²⁵⁾

현세에서의 최고선을 가능케 하는 일은 도덕법이 규정할 수 있는 의지의 필연적 목표이다. 그러기 때문에 칸트의 영혼불멸의 이론은 최고선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²⁶⁾ 그러면 최고선의 최상조건은 무엇인가? 칸트는 최고선의 최상의 조건을 완결된 덕 즉 심성이 도덕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에서 찾는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칸트는 '신성성'이라 하였다(KrV, 847).

인간의 지상목표인 최고선을 향하여 인간의 인격이 계속하여 완전한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 무한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유한한 인간세계의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선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무한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칸트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였다.²⁷⁾ 그런데 이 영원한 시간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불멸의 영혼 속에서만 찾아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영혼의 불멸은 '요청'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꾸어 말한다면, 최고선은 영혼불멸의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영혼불멸은 도덕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될 것이요, 순수한 실천이성의 '요청'인 것이다.

이에 대해 칸트는 말하기를 “영혼이 불멸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명제이긴 하나 그것이 선천적 무제약적으로 타당한 (실천)법칙에 떨어질 수 없이 붙어있는 한에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라고 이해한다”라고 하여 영혼불멸은 최고선을 위하여 '요청'되어 짐을 설명하고 있다.²⁸⁾ 시간적 제약의 넘어선 '무한존재자'는 완전히 도덕법과 일치하여 끝없이 전진하면서

24) 김태길, 『윤리학』(서울: 박영사, 2009), 130~132쪽.

25)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중현 옮김(서울: 아카넷, 2006), 56쪽.

26) 위의 책, 132쪽.

27) O. Höffe, 위의 책, 297쪽.

28) 최재희, 『실천이성비판』, 134쪽.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한진진에서만 도덕법과 일치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 본성의 “도덕적 사명”일 것이다.

이성적이되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가능한 일은 도덕적 완전성의 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에로 점차 향상하는 무한한 전진뿐이다.²⁹⁾ 무한 존재자가 각 사람에게 정하는 최고선의 분여에 있어서 무한존재자의 정의에 합치하고자 그의 명령이 요구하는 신성성은 이성적 존재자의 지성적 직관에 있어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 이리하여 인간은 그의 악에서 도덕적인 선으로 진보하여 온 이 진보가 인간에게 알려준 부동의 결심과 이런 진보-결심의 끊임없는 계속을 이승생활에까지 기대하기에 이른다. 즉 이승에서나 혹은 자기 생존을 내다 볼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가 아니라 (신만이 내다 볼 수 있는) 피조물의 무한한 존속에 있어서만 신의 뜻에 완전히 적합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칸트는 그런데도 인간은 선에 대한 진보에 있어서 자기 심정이 부동이라는 확신은 피조물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된다고 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유한자에 있어서의 초시간적 무한자의 것이 문제가 된다.³⁰⁾ 이것은 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진보에 있어서만 축복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세계의 우연적인 원인에서 독립된 완전한 행복을 표현하고자 이성이 사용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복은 신성성과 같은 하나의 이념이요, 이 이념은 무한한 진보 중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피조물, 즉 인간 이성은 그 이념이 결코 도달 할 수 없기 때문이다.³¹⁾ 그러므로 영혼불멸은 ‘요청’인 것이다.

도덕적으로 지향된 최고선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도덕성과 완전히 일치하여 도덕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의 유한성은 시간적 한계 속에서 유약하고 불순한 근본악에 빠지

29) 김진, 『칸트에서의 최고선과 도덕적 진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와 윤리학』(서울: 민음사, 1996), 108쪽.

30) I. Kant, 『실천이성비판』, 최재희 옮김, 135쪽.

31) 위의 책, 136쪽.

고 만든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덕적 세계의 창조자 혹은 최고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존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칸트는 최고선에 도달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세계의 창조자, 곧 신'을 전제하며 요청하기에 이른다.³²⁾

신의 존재에 대한 칸트의 '요청'은 최고선과 구별되는 완전선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완전선이란 최상의 선을 구현한 인격이 그 덕에 알맞은 행복을 누리는 상태, 즉 완전한 덕과 완전한 복의 결합을 의미한다. 무제약적으로 선한 것은 오직 의무에 대한 의지인데 세상은 이 의지의 행위가 잘 성립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착한 의지의 인간이 현실적으로 모두 다 행복을 누리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공평무사한 이성의 판단에 따르면 행복은 덕스러운 삶의 정도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선한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그 선함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보상이 가능한 도덕적 질서가 있어야 하며, 악한 사람은 그 악한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이 가능한 도덕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평무사한 이성의 판단에 따르면 행복은 덕스러운 삶의 정도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³³⁾ 선한 의지의 소유자가 반드시 복을 받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 원리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바람은 꼭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도덕의 과제요 있을 수 있는 사태여야 한다. 마땅히 있어야 할 완전선의 경지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한히 예지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런 신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가설에 불과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신앙이 된다. 그것은 순수이성에 근원을 둔 이성적인 신앙인 까닭에 칸트는 이를 '순수한 이성신앙'이라고 부른다.³⁴⁾

앞에서 이야기한 도덕법은 감성적 동기의 참가가 없이 순수이성에서만 규정되는 실천과제에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또 이러한 실천과제는 영원중에 있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법은 영혼불멸을 '요청'해왔던 것

32) 한자경, 『칸트의 초월철학』, 238~239쪽.

33) 강영안, 위의 책, 131쪽.

34) 김태길, 『윤리학』, 133쪽.

이다. 그런데 도덕법은 지금부터 그의 할 일이 자신의 법에 알맞은 행복의 전제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다. 즉, 행복을 얻기에 충분한 원인이 되는 신이 생존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영역이 곧 신의 실존에 대한 '요청'인 것이다.

영혼불멸은 최고선의 최상조건으로서 도덕성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최고선은 궁극적으로 덕과 복의 일치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완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도덕성에 상응하는 행복의 가능조건은 영혼불멸의 '요청'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청'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신의 '요청'이다.

이 실천과제 즉 도덕성을 완성하는 실천과제는 영원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법은 우리를 영혼불멸의 '요청'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도덕법은 다시 우리를 최고선의 요소인 도덕법에 적합한 행복의 가능성으로 인도해야 한다. 즉, 행복을 이루기에 충분한 원인이 생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최고선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 존재의 '요청'이다.

칸트가 행복을 인간 자신의 의지 또는 인간 영혼의 불멸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칸트의 윤리학이 기반하고 있는 바 도덕성과 본성, 이성과 감성 등 인간의 이원성 때문이다. 세계 내에서 행위 하는 이성 존재자는 세계와 자연 자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덕법에 있어서는 도덕성과 그에 비례하는 행복 간에 필연적 연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이성 존재자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연의 원인일 수 없고 또 자기의 행복에 관해서 자기 힘에 의해 자연을 자기의 도덕적 실천 원칙들과 완전히 비례하도록 할 수가 없다.

행복을 부여할 자연이 인간 자신의 산물이 아니기에 인간의 덕이 아무리 완성되어도 그 덕에 상응하는 복을 스스로 창출할 수 없다면 그런 덕과 복의 일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자는 결국 자연을 창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인 신일 수밖에 없다. 인간 자신에 의한 덕과 복의 필연적 연관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적 의지는 최고선의 이름 아래

그와 같은 덕과 복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인간이 지향하는 최고선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너머의 절대자인 신이 존재하여 덕과 복의 일치, 덕에 상응하는 복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선의 실현가능조건으로서 도덕적 이성은 필연적으로 신의 존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순수이성의 실천과제에 있어, 다시 말해서 최고선의 필연적 추구에 있어, 이러한 연관 즉, 덕과 복의 연관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요청'된다. 도덕성과 행복이 엄밀하게 조화되는 근거를 내포하는 원인의 존재가 '요청'되며, 자연과 구분되는 전체 자연의 존재가 '요청'된다. 자연의 최상원인은 최고선을 위해 전제되는 한, 오성과 의지에 의해서 자연의 원인이 되는 존재자이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지향하는 최고선의 실현가능조건으로서 '요청'을 제시한다. 하나는 도덕성의 완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인간 영혼의 불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완성된 도덕성에 상응하는 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신의 존재이다. 이렇게 해서 최고선의 실현가능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영혼불멸과 신의 존재는 그러한 최고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인간이면 누구나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필연성은 주관적이며, 즉 요구인 것이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칸트가 지적한 자율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³⁵⁾

IV. 신 존재 '요청'의 문제와 야스퍼스의 신 인식

칸트는 인식세계의 신은 알 수도 없고 증명되어 질 수도 없다고 하여 신 존재를 '요청'의 문제로 귀결하였다. 그리고 칸트에게 있어서 신 자신은 인간의 모든 현실로부터 추방되어 하나의 사유의 산물이 되었다. 야스퍼스는 이와 같은 칸트의 신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신관을 제시하였다. 야스퍼스에

35) 한자경, 『칸트철학에의 초대』(서울: 서광사, 2006), 154~156쪽.

의하면, 철학은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다. 즉 “철학적 사유의 성과는 언표될 수 있는 궁극적인 통찰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의식, 곧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양식이 변화되는 사유의 실현인 것이다.”³⁶⁾ 그런데 존재는 결코 주어져 있지 않다. 존재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철학은 탐구에 있어서 암호(暗號, Chiffre)를 가능한 신의 발자취(vestiga dei)로서 파악하는 것이지 은폐된 신 자체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암호가, 철학이 드러나게 할 수 없는 은폐성을, 궁극적이며 본래적인 존재로서 나타내줄 때에 암호는 철학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³⁷⁾ 그러므로 존재를 탐구하는 그의 철학은 형이상학적 존재론적이다. 그러한 존재는 객관적 존재인 세계와 자아 존재인 실존과 자체 존재로서의 초월자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서 그는 철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³⁸⁾

세계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전체를 가리키며, 정위는 방향을 아는 것을 뜻한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세계의 모든 사물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행동해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은 과학적 세계정위이다. 이러한 정위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의 통일적 인식 즉 하나의 세계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세계에는 물질, 생명, 마음, 정신의 네 가지 현실적인 영역이 있고 이들 사이에는 비약이 있다. 이들의 각 영역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세계의 규정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과학에 의한 통일적 세계상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과학에 의한 세계정위가 완결될 수 없고 결국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실존으로 비약하도록 깨우쳐 주는 데에 “철학적 세계정위”의 진정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³⁹⁾

야스퍼스에 의하면, 모든 학적 탐구는 “존재에 대한 탐구”인 것이며 모든

36) K. Jaspers, 『이성과 실존』, 황문수 옮김 (서울: 서문당, 1999), 187쪽.

37) 위의 책, 249쪽.

38) 최동희, 『야스퍼스』, 『세계철학대사전』(서울: 성균서관, 1977), 717쪽.

39) 최동희, 위의 글.

지식의 욕구 뒤에는 이미 형이상학적 충동이 있다. 그런데 이 탐구의 충동은 세계정위 속에는 '불만족'과 한계를 찾을 뿐이다. 실로 세계정위의 한계는 의식 일반에 의하여 찾아 질 수 없고 그 한계의 자각은 가능적 실존에 속한다. 세계정위에 대한 철학적 해명은 가능적 실존의 자각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밝혀진 “이 절대적 한계는 나를 나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나 내가 본래적인 나에게로 각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계상황’(Grenzsituationen)에 있어서이다.⁴⁰⁾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 던져진 존재인 인간은 무(無)의 존재로서 던져진 존재이다. 이 무의 존재로 던져진 인간은 자신에게 직면한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이 좌절하고 절망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변경하지 못한 채 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만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죽음(Sterben), 고뇌(Leiden), 투쟁(Kampfen), 우연(Zufall), 죄책(Schuld)로 나눈다.⁴¹⁾ 인간은 실존적으로 이러한 한계상황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초월과 함께 그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존재를 상징하고 사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계상황에서 부딪히는 한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한계를 만든 어떤 초월자를 암시해 준다.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이 초월자는 실재로서 인식되어지지 않고 다만 언표될 뿐이다. 초월적 존재는 현상적 사유를 넘어서 참된 실재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초월자는 참된 존재이다. 이것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는 어떤 숨어 있는 존재이다. 이 참된 존재로서의 초월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그에 따르면, 이 형이상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암호 독해’라고 한다. 이것은 초월자의 숨은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을 말한다. 초월자는 세계의 어떤 것 속에도 나타나 있으므로 세계의 모든 것이 암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암호는 초월자를 암시해 주는데 그치고 일반적인 해석은 내릴 수 없다고 한다. 그 해석은 그것을 해석하는 실존에 따라 다를 수

40) 김병주, 『존재와 상황』(서울: 한길사, 1981), 62~63쪽.

41) 정영도, “초월자의 암호 및 존재에의 열린 지평으로서의 죽음”, 정영도 편저, 『야스퍼스의 근본문제』(서울: 이문출판사, 1998), 73~74쪽.

있고 또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실존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초월자의 결정적인 암호는 모든 유한한 것의 좌절이라고 한다.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이 좌절할 때 비로소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Chiffrelesen)할 수 있다.⁴²⁾

야스퍼스에게 있어 철학적 사유는 언제나 초월하는 것이며 좌절 속에서 초월자의 실재로 다가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 속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한에서 신은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과학적 인식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개방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의 자유를 통해서만이 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자유는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영원한 존재와 역사적 잠정적 존재의 실재가 조우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⁴³⁾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앙적 자유란 세계 안에서 포괄자의 매개와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한계상황에서 좌절을 체험함으로써 한계 너머에 있는 타자를 인식하게 된다. 본래적 자기 존재는 그것이 자기의 자신에 충족되어 있으려고 하는 의욕에서 좌절할 때 그것의 타자 즉 초월자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좌절이 초월을 생각하고 초월자에 대해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 좌절은 단순한 절멸이 아니라 '영원화'의 문제와 관련된다. 좌절이란 실존으로 비약하는 장소인 동시에 초월자와의 관계에서 삶의 기반을 얻게 되는 바의 순간이요, 상황이다. 즉, 좌절은 한계상황에서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망하다는 것과 그 한계에서 실존적으로 초월이 가능하다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⁴⁴⁾

현존에게 있어서 좌절은 본래적인 자기를 회복하는 탈존의 비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현상만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순을 배제할 수 없지만, 초월적 관점에서는 현존의 이율배반에 수반되는 좌절이 암호가 된

42) 최동희, 『야스퍼스』, 『세계철학대사전』(서울: 성균서관, 1977), 718쪽.

43) 한국야스퍼스학회, 『칼 야스퍼스 비극적 실존의 치유자』(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202쪽; A. Lichtigfeld, "The God-Concept in Jaspers' Philosophy", ed. Paul A. Schilpp, *The Philosophy of Karl Jaspers*(New York: Tudor Publishing Company, 1957), 693~791쪽.

44) 강감희, 『칼 야스퍼스에 있어서 초월자의 암호해독을 통한 실존해명』(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65~68쪽.

다. 참된 좌절 속에는 영원화가 들어있고 초월자와의 접촉이 들어있다. 좌절은 단순히 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와의 존재를 가리키는 하나의 암호로서 나타날 수 있다.⁴⁵⁾ 죽음은 야스퍼스의 말과 같이 초월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른바 초월자의 언어로서 암호가 된다.⁴⁶⁾

초월자는 우리에게 현상들 대신 암호들을 보내주고 있다. 칸트가 대상으로 물자체에 대해 인식할 수 없지만, 그 현상들을 통해 사유될 수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는 초월자에 대해 그 암호를 통해 사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과 암호는 엄연히 다르다. 현상들은 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보편타당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암호들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도 없다. 어떤 실재에 있어서의 현상과 초월자에 있어서의 암호는 그 기능에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야스퍼스가 암호들을 통해 초월자를 사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초월자의 언어를 독해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곧 초월자의 음성을 듣는 것, 초월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초월자의 언어를 해독하며 사유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이고 실존해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전체 세계, 자연적인 현존 너머에 존재하는 자신의 근원에 의하여 자유로서 해명될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은 초월자의 현실성 혹은 초월자와의 조우를 통하여 세계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되는 가운데 그 자신이 되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 본래적인 존재로의 도약과 발견은 증여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자유는 우리 자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다. 인간에게 본래적 자유를 증여하는 근원성은 세계로부터도, 세계 내에서 인식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이 유래하는 근원은 바로 초월자, 곧 신이다.⁴⁷⁾

45) 위의 글, 74쪽.

46) 장영도, 『야스퍼스 철학의 근본문제』(서울: 이문출판사, 1998), 75쪽.

47) 강갑희, 「칼 야스퍼스에 있어서 초월자의 암호해독을 통한 실존해명」(부산: 동아대학교 대

인간은 스스로 자유 가운데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초월자로부터 증여된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야스퍼스는 신을 초월자로 보고 있다. 초월자에 대한 추구에서 우리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객관적인 보증을 원한다. 그리하여 신화, 신학, 철학에서 초월자의 존재는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언명하고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가 초월자와 직접적 경험을 원한다 해도, 초월자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초월자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사유에 의해 파악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암호라는 매개에 의해 사유될 뿐이므로 암호에 의해 초월자의 존재로 육박해 들어갈 수 있다. 암호는 초월자를 현재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초월자의 현실성은 대상성인 초월자의 언어인 암호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암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존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물,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 실재적인 것, 표상된 것, 사유된 것이 암호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신비적이고, 제의적이며, 교의적(教義的)이고, 시적이고, 예술적인 전통과 철학에서 발생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계획에 의해 암호를 해독하지 못한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에서 오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암호는 존재 자체인 초월자를 향한 운동의 자유로운 영역을 열어주고 초월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암호 문자의 해독에 있다. 그러므로 초월자의 암호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그의 철학에 있어 철학적 사유의 가장 높은 단계가 된다. 여기서 야스퍼스가 제시하고 있는 초월자의 근본 암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암호가 있다. 다양한 암호 중에서 세 가지 근본 암호를 들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적이고 성서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근본암호는 첫째, 하나의 신이다. 둘째, 인격적 신이다. 셋째, 신이 인간이 된 것이다.⁴⁸⁾

그런데 이와 같은 초월자의 근본암호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체험 가능하고 지각 가능한 존재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79~80쪽.

48) 최양석, 「세계 철학의 두 유형: 플로티노스와 야스퍼스」, 한국야스퍼스학회, 『칼 야스퍼스 비극적 실존의 치유자』(서울: 철학과현실사, 2008), 204~206쪽.

초월자에 대한 이해는 포괄자로서의 현존재, 의식일반, 그리고 정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⁴⁹⁾ 이러한 아스퍼스의 주장 안에는 칸트와 같은 인간의 신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세계는 조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는 실존으로 비약한다. 이 실존은 어떤 대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객관화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존재이다. 이러한 실존을 밝혀주는 독특한 방법이 실존해명이다. 실존 해명은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자아 존재에 눈뜨게 하고 자기 자신이 되게 한다. 이 경우에 과학적 지식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제쳐 놓을 뿐이다.

아스퍼스에 따르면 실존을 가장 잘 해명해 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죽음, 고뇌, 투쟁, 책임 같은 '한계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속으로 뛰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해명된다. 그런데 이 "한계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필연적으로 놓여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⁵⁰⁾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변경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상황을 아스퍼스는 '한계상황'이라고 하였다.⁵¹⁾ 한계상황 가운데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현존재에게는 결정적인 종말이 되고 실존에게는 초월자 앞의 본래적 자기에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근거가 된다. 한계상황은 생존이 그 자체로서는 기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⁵²⁾ 기반이 없는 인간의 실존은 결국 그 한계상황 속에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그 한계상황과 초월적 인식은 결국 인간의 본래성을 되찾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맞부딪

49) K. Jaspers, 황문수 옮김, 『이성과 실존』(서울: 서문당, 1999), 173~180쪽.

50) 최동희, 위의 글.

51) 박선정, 『칼 아스퍼스의 철학에 있어서 한계상황의 체험을 통한 신 존재 개명에 관한 연구』(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0쪽.

52) 정영도, 『아스퍼스 철학의 근본문제』(서울: 이문 출판사, 1998), 74쪽; 김병주, 『존재와 상황』(서울: 한길사, 1976), 65쪽.

히면서도 돌파할 수 없는 ‘벽’으로서 인간은 여기에서 다만 현존재로부터 실존으로 비약하여 나아감으로써 초월에 직면하는 것이며, 또 본래의 철학적 사유가 생겨나는 것도 이 한계상황의 부정적인 체험을 통해서이다.⁵³⁾

야스퍼스는 “철학적 신앙은 사색하는 사람의 신앙이며, 그것은 항상 지식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⁵⁴⁾고 말한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신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신앙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신앙이 이성을 배척하지 않으며, 이성이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칸트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성에 의한 신의 인식 자체를 차단하고 오직 실천과 도덕적 영역으로만 한정지으려고 하였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철학적 신앙이란 인간의 오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인간의 신앙이란 사이비의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어야 하고, 자신의 신 존재 인식이 주관적인 데에만 머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에 매몰되어서 그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 있어서 칸트와 야스퍼스는 만난다. 이성이 만용을 부려서 신앙의 영역을 월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야스퍼스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반이성적이거나 무질서한 어두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일 수는 없다.”⁵⁵⁾ 더 나아가서 야스퍼스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는 올바른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존재이시다. 이 존재에다 남김없이 나를 바치는 것이야말로 실존의 본래적인 양식인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을 던져서까지 나를

53) 박선정, 『칼 야스퍼스의 철학에 있어서 한계상황의 체험을 통한 신 존재 개명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0쪽.

54) K. Jaspers, 『철학적 신앙』, 신옥희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18쪽.

55) 위의 책, 18쪽.

바치게 되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믿어진 하나님의 뜻의 제약과 끊임없는 검토 밑에서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바침에서는 인간은 단순히 사실적인, 해명되지 않는, 자기 위에 있는 권력을 생각 없이 섬기게 되며 따라서 (보는 것, 묻는 것, 생각하는 것의 결핍으로 인하여) 마귀를 잘못 섬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⁵⁶⁾

키에르케고르는 종교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⁵⁷⁾ 같은 말로 야스퍼스도 동일하게 주장한다. “인간은 신에게 관련지어진 존재”(das gottbezogene Wesen)이다.⁵⁸⁾ 이처럼 당연하다 여길 수 있는 말에는 신의 존재가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야스퍼스를 통해서 논의된 것처럼 초월자, 혹은 신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시신앙이 하나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종교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⁵⁹⁾

인간의 종교, 혹은 계시체험이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 체험이자 역사적 체험이다. 인간의 이성을 통한 상호소통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인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외부적 사실이 아니라 내면적 의식, 철학적 의식과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야스퍼스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신은 인간의 감성계의 영역과 예지계의 영역 즉 인간의 이성과 신앙을 통일하는 일자로서 그 조화를 위한 매개자이자 포괄자라고 볼 수 있다. 단지 그가 초월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인간 의식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양자를 포괄하는 존재로 보아야만 한다. 칸트의 '요청'으로서의 신은 포괄자로서 예지계의 신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과 현상계(감성계)의 이성

56) K. Jaspers, 『실존철학입문』, 윤성범 옮김(서울: 신양사, 1969), 123쪽.

57) S. Kierkegaard, 『키르케고르와 함께 하는 52주 묵상여행』 최홍덕 옮김(서울: 패스터스하우스, 2006), 52쪽.

58) 김병우, 위의 책, 177쪽.

59) 김병우, 위의 책, 173쪽.

인식 사이를 실천이성이라는 것으로 매개하기 위한 철학적 신앙의 장치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신론적 철학자들의 사유와도 맞닿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야스퍼스의 생각에서도 읽혀지고 있다.

정작 모든 것을 포섭하는 하나의 유기적 전체 내에서 일체의 것을 위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거나 또는 존재내의 모든 사물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근본적인 긴장, 불일치, 양립불가능성 때문에-우리는 가능한 한 통일을 시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성의 과제이다.⁶⁰⁾

또한 칸트의 시공간 개념 안에 초월적 존재인 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듯이 보여도 그의 정언명법은 신과의 만남을 통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존재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이 점은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의 독특한 성격과도 그 맥락이 닿아 있다. 단독자는 신의 만남을 통해서 타자인 이웃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참된 관계를 맺는다. 이른바 이웃사랑을 통한 공동관계를 맺는 것이다.⁶¹⁾ 칸트가 실천이성을 통해서, 또는 도덕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의무론적 존재를 전개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요청'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역사적 존재이자 실존적 한계 속에서 포괄자가 현상계와 예지계를 종합하려고 한 칸트적 사상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야스퍼스와도 통한다.

V. 맺는 말

칸트의 철학이 기여한 바는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성비판철학에 대한 그의 체계적이고

60) Charles F. Wallraff, *Karl Jaspers, An Introduction to His Philosophy*(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213쪽.

61) 표재명,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서울: 서광사, 1992), 126-127쪽.

치밀한 논리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인간의 삶이 보편적 이성에 정초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철학적 입장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의 도덕적 신앙을 통해서만 초월적 존재와의 접촉을 결핍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실존적 삶의 변혁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시 유신론적 실존철학을 통한 신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실존의 위기, 삶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단지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요청'으로서의 신이 아닌 저편에서 이 세계를 향해 꿰뚫고 들어오는 계시로서의 철학적 신앙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칸트의 시대적, 철학적 고민은 아마도 인간 이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겸손한 탐구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성과 신앙의 분열과 같은 현상을 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설령 신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들이 불가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신에 대한 초월성과 계시성을 부인하면서 '요청'으로서의 신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칸트는 신의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요청'으로서 신의 존재를 논함으로써 이성과 초월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칸트가 설령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한계를 주장하고 실천이성의 도덕적 법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장치로서의 신을 '요청'했다고는 하나, 신의 없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칸트를 비롯한 유신론적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피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칸트에 대한 비판이 한쪽으로 치우친 비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신에 대한 존재인식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그것이 오늘날 신과 종교를 운운하는 모든 세계의 종교 공동체에 중요한 사유와 실천을 통합하는 철학적 신앙이 될 수 있겠기에 말이다.

그럼에도 야스퍼스의 입장을 통해서 보자면 칸트는 형식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삶의 내용에 허무함을 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야

스퍼스의 해석자 월레프(Charles F. Wallraff)가 주장한 것처럼 “포괄자를 지향하는 이성이 우리를 허무주의로부터 보호”⁶²⁾ 한다는 것에 종교적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칸트가 이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의 인식 가능성을 실천이성의 영역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지향하는 능력까지 제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야스퍼스나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유신론적 철학자가 생각하는 이성을 통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과 실천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칸트의 ‘요청’으로서의 신 존재와 신 인식의 한계는 아래로부터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실존적, 도덕적 해명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위를 향한 초월적 존재에 인식과 실천은 이른바 계시적 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삶의 세계가 더 성숙되기 위해서 이제 철학은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계시에 직면한 철학과 실존을 더 깊이 해명 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성균서관, 1977.

강갑희, 「칼 야스퍼스에 있어서 초월자의 암호해독을 통한 실존해명」,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강영안,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서울: 소나무, 2000.

김병주, 『존재와 상황』, 서울: 한길사, 1981.

김석수, 『칸트와 현대사회 철학』, 서울: 울력, 2005.

김진, 「칸트에서의 최고선과 도덕적 진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와 윤리학』, 서울: 민음사, 1996, 95-124쪽.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1979.

62) Charles F. Wallraff, *Karl Jaspers. An Introduction to His Philosophy*(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214쪽.

- 문성학, 『칸트 철학의 인간학적 비밀』,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 ,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존재론』,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 박선정, 「칼 야스퍼스의 철학에 있어서 한계상황의 체험을 통한 신 존재 개명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종홍, 『인식논리』, 서울: 박영사, 1978.
- 정영도, 『야스퍼스 철학의 근본문제』, 서울: 이문 출판사, 1998.
- , 「초월자의 암호 및 존재에의 열린 지평으로서의 죽음」, 정영도 편저, 『야스퍼스 철학의 근본문제』, 서울: 이문출판사, 1998, 73-95쪽.
- 최양석, 「세계 철학의 두 유형: 플로티노스와 야스퍼스」, 한국야스퍼스학회, 『칼 야스퍼스 비극적 실존의 치유자』,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 최재희,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연구』, 서울: 박영사, 1976.
- 표재명,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서울: 서광사, 1992.
- 하선규, 「칸트 전비판기의 함목적성의 개념」, 『철학연구』, 제44집, 1999/봄, 213-238쪽.
- 한자경, 『칸트의 초월철학』, 서울: 서광사, 1992.
- , 『칸트철학에의 초대』, 서울: 서광사, 2006.
- 홍종률, 『이성신앙과 철학적 신앙』, 서울: 형설출판사, 2001.
- Aristoteles, *Metaphysica*.
- Höffe, O., 『임마누엘 칸트』, 이상현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Jaspers, K., 『철학적 신앙』, 신옥희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 , 『실존철학입문』, 윤성범 옮김, 서울: 신앙사, 1969.
- , 『이성과 실존』, 황문수 옮김, 서울: 서문당, 1999.
-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1959. 『순수이성비판』, 최재희 옮김, 서울: 박영사, 1990.
-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1974. 『실천이성비판』, 최재희 옮김, 서울: 박영사, 1974.
- , 『도덕철학서론』, 최재희 옮김, 서울: 박영사, 1997(2판).
- ,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6.
- Kierkegaard, S., 『키르케고르와 함께 하는 52주 묵상여행』, 최홍덕 옮김, 서울: 패스터스 하우스, 2006.
- Lichtigfeld, A., "The God-Concept in Jaspers' Philosophy", ed., Paul A. Schilpp, *The*

Philosophy of Karl Jaspers, New York: Tudor Publishing Company, 1957,
693-791.

Wallraff, Charles F., *Karl Jaspers. An Introduction to His Philosoph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Weischedel, Wilhelm(편) , 『별이 총총한 하늘아래 약동하는 자유』, 손동현·김수배 옮김,
서울: 이학사, 2006.

〈Abstract〉

God's Existence as a 'Postulate' by Kant
and the Problems of
Jasper's Cognition of God

Kim, Young Soon

This article aims at pointing out the limits of God's existence which is 'postulated' by Kant's moral performer, and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God's existence as transcendental being through Jasper's theistic understanding of God's existence, and further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a transcendental argument in the field of the study of God's existence.

According to Kant, the range of human cognition is limited to the 'world of experience', the phenomenal world, and the world of senses which is conditioned by time and space. Despite of Kant's theory, traditional metaphysicians argue that 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God is possible, and also that it is the one true realization that God exists. That's why Kant opposed the idea of understanding the God theoretically and had a critical view of the traditional demonstration of God's existence.

Kant's ultimate goal, when he argued impossibility of the demonstration of God, must be considered using both the Critique of Pure Reason and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Kant's regulation of the impossibility of understanding transcendental being through limitations and denial of metaphysics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was the groundwork to set typical metaphysics which leads to moral metaphysics.

For Kant, demonstration of the existence of God was all about 'using reason' and as one who wanted to establish new metaphysics it was an unavoidable problem. Kant states metaphysics as a structure of freedom, soul and God.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Kant 'postulated' God as a condition to make human's moral when he argued that there is freedom beyond the phenomenal to the field of practical reason. Kant concluded his theory of 'God's existence by 'postulate' since there is no chance of knowing and proving God's existence in the world of cognition.

Jaspers developed his theism of philosophical faith to overcome Kant's religious point of view. According to Jaspers, it is 'Grenzsituation' like death, agony, strife and responsibility which explain the best existence. Death at the 'Grenzsituation' is indeed a decisive end of a human being and it's a possible foundation to breakthrough to primarily self in front of transcendental to the being. The limitation that we face at the 'Grenzsituation' does not come from our internal mind. That suggests a transcendental being who made that limitation. To Jaspers that transcendence is not recognized as reality but just as a statement. It is a true existence which is hiding and cannot be an object ever. Questioning true existence transcendence is metaphysics. The most important way to see metaphysics is called 'solving a cipher'. Not until all knowledge and all philosophy is abandoned we can truly 'chiffrelesen'(solve the cipher).

Kant's contribution to philosophy is simply undeniable through entire

history of philosophy. However, Kant's way to interpret religion unavoidably confronting a limitation. In particular, he based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transcendental being on his moral-religion and also discouraged a change in human existence. Therefore, now we must give some thought to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God through theistical existence philosophy. Since not just God is 'postulated' to become a moral performer in the situation of the existential crisis and the crisis of our entire life, philosophical and religious revelation is strongly needed to come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this side.

Kant postulated God existence and limitation of the understanding God is a moral explanation of transcendental being from the bottom. Beyond and toward transcendental existent understanding and practice could be a revelation explanation. In that sense, to mature the world of moral life, philosophy now has an assignment to explain the philosophy which confronts the revelation and existence more thoroughly.

Key Words : Moralmetaphysics, God's postulation, the supreme good, virtue, immortality of the soul, existence, Grenzsituation, chiffrelesen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